

研究論文

# 한국과 냉전: 제 2냉전 성립기의 KAL기 격추사건과 그 종식기의 서울올림픽이 냉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강 규 형\*\*

---

I. 서론	IV. KAL기 격추에서 동구권의 서울올림
II. 데탕트의 종인과 KAL 007 기 격추사건 의 발생	픽 참가로의 변화
III.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미·소의 대응	V. 결론

---

## I. 서론

냉전은 “국제체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restructure)하려는 소련과 미국의 경쟁관계”라고 정의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과정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인류전체를 절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보유했던 두 진영 사이의 40여 년 간에 걸친 대치상태로 이어졌지만, 두 진영사이의 직접적인 열전(Hot War)으로 전화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종식된 “긴 평화(Long Peace)의 시대”이기도 했다.<sup>2)</sup>

---

\* 이 논문은 국제정치학회 외교사분과모임을 통한 한신대 김명섭 교수와의 공동작업의 일부로서 2002년도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명지대학교 교육학습개발원(교양학부) 조교수, 현대사

1) John Lewis Gaddis, “Containment: It’s Past and Future,” in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ttkopf eds., *Perspectives in American Foreign Policy: Selected Readings*, St. Martin’s, 1982, p. 20.

2) “긴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참조

결국 적대적 대치와 평화라는 두 개의 반대개념을 지닌 냉전은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었다.<sup>3)</sup> 레이몽 아롱에 따르면 특히 한국전쟁은 냉전의 복합적 성격을 고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냉전은 대치상태의 격화, 즉 “이룰 수 없는 평화”(la paix impossible)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냉전(Cold War)이 열전(Hot War)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제어기능, 즉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la guerre improbable)이라는 구조를 가진 체제이기도 했다.<sup>4)</sup>

냉전체제는 다음과 같이 그 시기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sup>5)</sup>

제 1 기 - 냉전체제의 성립기(1945-1955).

제 2 기 - 냉전체제의 다극화 시기(1956-1970).

제 3 기 - 냉전의 해빙기(1971-1979).

제 4 기 - 제 2의 냉전과 종식기(1979-1989).

분단한국과 이러한 냉전이라는 국제체제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했었다.<sup>6)</sup> 그 중 냉전체제라는 큰 톱니바퀴가 한국이라는 작은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 구조에 대한 인식은 압도적인 것이었고 냉전시대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즉 모든 시기를 통해 냉전체제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 압도적 영향력을 지녔다. 그러나 거꾸로 한국이 냉전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고 그것이 다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구조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한국이 냉전

3) 냉전의 다른 복합적 성격에 대해서는 Fred Halliday, *The Making of the Second Cold War*, Verso, 1989, pp. 7-9 참조

4) Raymond Aron, “Stupide resignation,” *Le Figaro*, 1947, Sep 21/22.

아롱의 한국전쟁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Raymond Aron, *Les Articles du Figaro*, vol.1: *La Guerre Froide, 1947-1955*, Ed. de Fallois, 1991, p. 735 참조

5) 김명섭, 「냉전연구의 현황과 전망」, 『국가전략』 3 권2 호(1997), 79 쪽의 시기구분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6) 이 점에 대해서는 하영선·김영호,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한국국제정치학 바로 세우기」, 『2002년도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외교사분과위원회 기획회의 논문집』, 8-10쪽; Chae-sung Chun, “The Cold War and Its Transition for Koreans: Their Meanings from a Constructive Viewpoint,” in Chung-in Moon, Odd Arne Westad, Gyoo-hyoung Kahng eds.,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Yonsei University Press, 2001, pp. 115-146 참조

에 미친 ‘복합적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차자료들과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제 2냉전의 시작과 전체 냉전의 종식으로 특징 지워지는 제 4기이다. 참고로 이 4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1979년 12월), 폴란드무력개입(1980년 12월) 등으로 데탕트분위기가 반전되고, SDI 계획 발표(1983년 3월)와 KAL007기 격추사건(1983년 8월)에 대한 강경대응 등 레이건 및 부시행정부의 대소강경정책이 지속되다가 냉전체제가 급속한 붕괴과정에 돌입한 시기였다.

## II. 데탕트의 종언과 KAL 007기 격추사건의 발생

1983년 9월 1일 KAL기 격추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2차 냉전(the Second Cold War)’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기였다. 카터행정부의 일관성 부족과 정치적 미숙, 그리고 소련의 심각한 정책판단상의 오류는 결국 데탕트의 파산을 야기했다.<sup>7)</sup>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공식적으로 데탕트의 종언을 가져왔고 제 2냉전 또는 신냉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sup>8)</sup> 카터는 80년 1월 “카터 독트린”의 발표를 통해 “페르시아만 일대의 지배권을 얻으려는 어떤 외부세력의 시도도 미국의 국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소련에 대한 곡물과 하이테크 상품 수출 금지, 80년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 보이콧, 문화과학교류단축, 군사비증액과 군사적 대응준비, 그리고 아프간에서의 이슬람반군지원이라는 강경대응책을 내놓았다.

곧 이어 80년 말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강경 반공주의자 로널드 레이건은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미국의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이러한 레이건의 대소 강경정책은 KAL기가 격추되기 직전에도 계속됐는데 83년

7) John Lewis Gaddis, *Russia,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 Interpretive History*, 2nd ed., McGraw Hill, 1990, pp. 295-313.; Gaddis Smith, *Morality, Reason, and Power : American Diplomacy in the Carter Years*, Hill and Wang, 1986.

8) Michael Howard, “Return to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LIX: America and the World, 1980, p. 463.

3월 8일에 행한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로 규정한 연설<sup>9)</sup>과 2주 후에 세계를 놀라게 한 스타 워즈(Star Wars)계획, 즉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의 천명<sup>10)</sup>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SDI 계획은 소련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소련의 해체 이후 소련 외교를 종합분석하기 위해 러시아와 서구의 전문가들에게 위촉하여 가브리엘 고로데츠키가 편집한 *Soviet Foreign Policy, 1917-1991: A Retrospective* 에 기고한 글에서 고르바초프의 외교자문이었던 빅토르 쿠발딘은 “서방은 소련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기술적 우위에 섰었다. 따라서 전략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러한 의미 없고 위험한 게임은 소련에게 최소한의 손실만 미친 채 종식되어야만 했다”고 증언하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sup>11)</sup>

이러한 레이건의 대소 강경입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준 사건이 바로 소련에 의한 KAL007기 격추사건이었다. 소비에트로지스트인 R. 크랙 네이션이 그의 『소련안보사』에서 잘 지적한 것처럼 KAL 사건은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돼온 항공정찰이 수반된 북서태평양지역의 군사적 경쟁구도가 가져온 예고된 비극이었다.<sup>12)</sup> KAL격추사건 이전의 긴장상태는 이미 점증되고 있었다. 소련은 서방측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RYAN 이라는 첩보경보체제를 발동하고 있었고, 서독과 영국의 선거에서 보수파인 헬무트 콜과 마가

9) 「플로리다 올랜드에서의 3월 8일 연설,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Ronald Reagan, 1983*, Washington, 1984, pp. 363-364.

10) 「3월 23일 라디오 텔레비전 연설, *Ibid.*, pp. 442-443.

11) Viktor Kuvaldin, “From Cold War to New World” in Gabriel Gorodetsky ed. *Soviet Foreign Policy, 1917-1991: A Retrospective*, Frank Cass, 1994, p. 193.

쿠발딘은 이 글이 쓰여진 1994년에 고르바초프 재단의 수석연구원이었다

12) R. Craig Nation, *Black Earth, Red Star: A History of Soviet Security Policy, 1917-1991*,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p. 270-271.

CNN의 24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Cold War*는 특히 사건 직전에 일어나고 있던 이 지역의 군사증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당시 소련해군은 이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4개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련은 또한 이 지역에 델타 잠수함들 이외에도 각각 80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25000톤 타이푼급 잠수함이 몇 대 있었고, 2400대의 전투기와 50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4대의 초대형 항공모함을 포함한 제 7함대와 알류산열도, 일본, 한국의 해, 공군기지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83년 초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Jeremy Isaacs and Taylor Downing, *Cold War: An Illustrated History, 1945-1991*, Little Brown, 1998, p. 348 참조. 이하 『CNN 냉전 시리즈』로 표기. 이 시리즈에 대해서는 주 39 참조

릿 대처의 승리는 소련의 경계심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sup>13)</sup> 이러한 긴장상태가 절정에 다다르게 한 사건이 바로 KAL007의 격추였다. 국제정세가 초긴장으로 흐르고있을 때 한국의 KAL007기는 너무나 부주의하게 소련의 군사요충지 위를 날고 있었고 과민상태에 있던 소련 공군은 여기에 대해 과잉대응을 함으로서 대형 비극이 야기됐던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즉각 소련의 행동에 “테러행위”, “반인륜범죄”, “야만행위”라고 맹공을 가했고 소련은 처음에 격추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KAL기가 미국을 위한 첩보행위를 했다고 역으로 맹 비난했다<sup>14)</sup>

KAL사건이 일어나는데 큰 심리적 영향을 미쳤던 RYAN 에 대해서는 KGB 의 고급 첩보원(agent)이었던 올렉 고르디에프스키 대령의 저술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그는 1974년부터 영국 첩보당국의 스파이로 포섭됐고 KGB 의 런던 총책으로 있던 1985년 영국으로 망명을 한 인사로서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서 영국의 첩보사의 대가인 크리스토퍼 앤드루와 같이 KGB 에 대한 책을 썼다<sup>15)</sup> 이 책은 흥미진진한 고급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RYAN 이 발동될 당시의 소련의 긴장상태 그리고 그가 RYAN 에 대한 정보를 서방에 몰래 넘겨줬을 때 서방이 가졌던 공포를 기록하고 있다.

고르디에프스키의 회고는 또 KAL 사건이 일어났을 때 KGB가 서방 각국에 퍼

13) Martin Walker, *The Cold War: A History*, Henry Holt, 1993, p. 275.; Isaacs and Downing, *Ibid.*, pp. 345-346.

14) 위에 있는 비난들은 레이건 자신이 사건 직후에 한 발언들이다. Isaacs and Downing, *Ibid.*, pp. 346-347.; Raymond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p.106, p.121.

한국정부는 84년 12월 31일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방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유용하지만 아쉽게도 서방측의 입장옹호와 소련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있다. 이 자료집에 있는 미국 측 성명은 「슐츠 국무장관 대언론 발표문 (83.9.1)」, 「레이건 대통령 성명 (83.9.1)」, 「레이건 대통령 2차 성명 (83.9.2)」, 「레이건 대통령 대소규탄 라디오 연설문 발췌 (83.9.3)」, 대한민국 외무부, 『소련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 007기 피격사건에 대한 자료집』(1984), 103-108쪽 참조. 소련 측 성명은 「그로미코외상의 슐츠 국무장관 앞 전담(83.9.1)」, 「타스 통신 최초 보도 (83, 9.1)」, 「타스 통신 발표(83.9.2)」, 「타스통신 발표 소련정부 성명 (83.9.6)」, 『같은 책』, 157-170쪽 참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의 대소 규탄 성명은 『같은 책』, 905-931쪽 참조. 실제로 이 사건의 여파는 198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레이건의 재선에 큰 도움이 됐다. Seymour M. Hersh, *"The Target is Destroyed": What Really Happened to Flight 007 and What America Knew About It*, Random, 1986, pp. 246-247.;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 122.

15) Christopher Andrew and Oleg Gordievsky, *KGB: The Inside Story*, Harper Collins, 1990.

져있는 요원들에게 보낸 세 개의 긴급메시지의 내용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sup>16)</sup> 첫 번째 메시지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서방의 공격에 대해 모든 소련의 배, 비행기, 사람, 건물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두 개의 메시지는 KAL기가 스파이활동에 이용됐다는 반박 선전을 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이 저술은 KAL사건이 당시 모스크바 근교의 쿤체보병원에서 신장투석기로 연명하고 있던 안드로포프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안드로포프는 전쟁이 임박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레이건행정부의 “황당한 호전적 정신상태”를 비난했다고 기록했다.<sup>17)</sup> KGB의 첫 번째 메시지와 안드로포프의 반응은 당시 소련의 패닉상태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9월 2일 소련은 공식적으로 KAL기가 소련영공 내를 비행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미국이 소련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미국은 격추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9월 8일 워싱턴과 뉴욕의 소련 국영항공 아에로플로트 사무실 폐쇄를 명령했다.<sup>18)</sup> 이 사건의 여파로 9월에 마드리드에서 열린 조지 슈츠와 안드레이 그로미코간의 유럽 안보/협력회의는 격양된 상태에서 결렬됐으며, 이후 그로미코의 UN 참석도 미국정부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통보하고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가 그로미코의 특별기 사용을 불허하고 일반기 사용을 권함에 따라 무산됐다.<sup>19)</sup> 안드로포프는 9월 28일 TV/Radio 연설과 다음날 프라우다 기고를 통해 KAL기 사건이후 미국이 보이는 반소정책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sup>20)</sup>

KAL사건 이후 출판된 몇몇의 책들은 당시 가능한 신문과 잡지의 보도들을 기반으로 추측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일보 외신부 차장이었던 김병무의 책은 한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으며,<sup>21)</sup> 독일 언론인인 프란츠 카텔은

16) Ibid., p. 498.

17) Ibid., p. 501.

18) Anatoly Dobrynin, *In Confidence: Moscow's Ambassador to America's Six Cold War Presidents (1962-1986)*, Times Books, 1995, p. 536, p. 538. 『소련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007기 피격사건에 대한 자료집』, 932-935쪽 참조

19)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p. 126-127.; Dobrynin, pp. 539-540.; Hersh, p. 175.; 「그로미코 외상의 구주 안보 회의 시 KAL기 사건관련 언급발췌 (83.9.7)」, 「마드리드 회담 후 슈츠 국무장관 성명」, 『소련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 007기 피격사건에 대한 자료집』, 171~172, 117쪽

20) 안드로포프는 관계개선의 “환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언급했다. *Pravda*, 1983. Sep. 29. 참조

KAL사건의 추이를 잘 정리했으며 특히 소련을 비난하는 서방의 데모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22)</sup> 스탠포드 대학의 저명한 소련학자인 알렉산더 달린이 쓴 책은 거시적 측면에서 007기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이 KAL기의 영토침범에 어떤 식이건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sup>23)</sup> 데이비드 피어슨, R. W. 존슨, 그리고 올리버 클럽의 책들은 KAL007편이 레이건 정부를 위한 첩보행위에 동원됐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하고있고,<sup>24)</sup> 반대로 제프리 세인트 존의 저서는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 중 하나가 대표적인 반소주의자였던 조지아주 출신 로렌스 맥도날드 하원의원이었고 당시 소련 지도자가 과거 KGB의 우두머리였던 “크레믈린의 코브라” 안드로포프였던 것에 주목하며 소련이 고의적으로 KAL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소련영공으로 유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25)</sup> 위의 책들은 카텔과 달린의 책을 제외하고는 진지한 자료로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sup>26)</sup> 근년에 흥미위주로 출간된 KAL 사건 관련 책들 역시 KAL기가 첩보활동 중이었으며 그 날 KAL기 이외에도 마 소간 공중전이 벌어져 미군기가 10대가 격추됐던가,<sup>27)</sup> KAL기가 불시착을 하여 소련당국에 의해 구조되어 현재까지 억류돼 있다<sup>28)</sup>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21) 김병무, 『대답 없는 007기』, (한진출판사 1984).

22) Franz Kadell, *The KAL 007 Massacre*, Alexandria, Western Goals Foundation, 1985.

23) Alexander Dallin, *Black Box: KAL 007 and the Superpower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24) David Pearson, *KAL007: The Cover-Up*, Summit Books, 1987.; R. W. Johnson, *Shootdown: Flight 007 and the American Connection*, Viking, 1986.; Oliver Clubb, *KAL Flight 007: The Hidden Story*, Permanent Press, 1985. 특히 피어슨과 클럽은 1978 년 다른 KAL 기의 무르만스크 강제착륙사건도 첩보행위와 연결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Pearson, *Ibid.*, pp. 101-102; Clubb, *Ibid.*, pp. 141-142.

25) Jeffrey St. John, *Day of the Cobra: The True Story of KAL Flight 007*, Thomas Nelson, 1984. 이 저서는 우리나라에도 『코브라의 날: KAL007기-KGB의 음모에서 격추까지』 이윤기 역, (영학출판사, 1984)로 번역됐었다.

26) 참고로 한국의 KGB요원 납치와 이에 대한 소련의 보복이라는 허구에 기반한 KAL사건에 대한 흥미위주의 추리소설도 사건 직후 프랑스에서 출간됐다. Gerard de Villiers, *Le Vol 007 Ne Repond Plus*, Plon, 1984.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KAL기를 격추하라』 박선경 역, 일월서각 (1985)로 번역됐다.

27) Michel Brun, *Incident at Sakhalin: The True Mission of KAL Flight 007*, Four Walls Eight Windows, 1996.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준 높은 자료와 분석이 나오면서 KAL 격추사건은 냉전사의 큰 틀에서 분석될 수 있었다. 원로 냉전사가인 워렌 코헨은 캠브리지 미국 국제관계사 시리즈의 4권인 그의 저서 *America in the Age of Soviet Power, 1945-1991*에서 당시의 긴장상태와 당시 미국이 실제로 사고 장소 부근에서 항공첩보활동을 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소련의 격추행위는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안드로포프가 사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거부한 것과 레이건이 당시 정보를 통해 소련이 미국첩보기로 오인하고 격추한 것을 알고서도 민간항공기인 줄 알고 격추했다고 소련을 비난하며 사실을 왜곡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해석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고 많은 관계자와 학자들에게서 지지 받고 있다.

소련 파일럿은 KAL기를 미국정찰기로 오인해서 격추했으며,<sup>30)</sup> 소련당국은 나중에 그것이 한국민간항공기인 줄 알고 나서도 이 비행기가 소련의 극동지역레이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도발된 것이라고 믿었다. 당시 소련의 주미대사였던 아나톨리 도브리닌은 사건발생시 크리미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이라 곧바로 안드로포프 집무실로 긴급히 호출됐기에 당시 안드로포프의 인식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안드로포프는 “우리 군대가 심각한 실수로 민항기를 격추시켰으며, 이 아수라장 속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동안 쌓아왔던 관계개선 노력이 “저 머저리같은 장군들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안드로포프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방장관 우스티노프의 권유로 그것을 포기했다. 이러한 결정은 일단 소련의 국제적 위신과 국내적인 파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것에 대해 도브리닌은 비록 KAL기가 불법적으로 소련영공을 비행했으나 소련공군의 실수로 격추된 것에 대해 공개적이며 정중하게 사과하지 못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28) Bert Schlossberg, *Rescue 007*, Xlibris Corporation, 2001.

29) Warren Cohen, *America in the Age of Soviet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226-227.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무성의 공식 사가였던 레이먼드 가토프도 동의하고있다.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p. 119-122.

30) 격추 조종사는 그의 보고서에서 시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KAL기의 실루엣이 미국 정찰기의 그것과 똑같아서 오인했다고 증언했다. Dobrynin, *In Confidence*, p. 538.

평가하며, 아울러 의도적으로 소련이 민간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비난한 레이건의 태도도 비판을 한다. 즉 마소 양국은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필요이상의 긴장상태에 빠지게 됐던 것이다. 또한 당시 소련공군이 이러한 실수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 소련 공군의 사할린과 캄차카반도 상공의 레이더 시스템이 보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항공기가 한 시간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련상공을 날 수 있었고 이 비행기가 공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특히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sup>31)</sup>

미국 측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사건 이후 상원 외교위 비공개 회의에서 NSA가 소련조종사가 문체의 비행물체가 민항기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사건으로 촉발된 반소련 분위기를 이용하려 했던 측면이 강했다.<sup>32)</sup> 大記者이자 유명 저술가인 세이모 허쉬는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중 오직 한사람, 캐나다 총리 피에르 트뤼도 만이 그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증언한다. 트뤼도는 이미 9월말 온타리오에서 행한 연설과 10월 4일 캐나다 하원에서의 발언에서 고급정보에 의거해 소련이 고의로 민항기를 격추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으나 당시의 반소적 분위기 속에 묻혀버렸다. 훗날 허쉬와의 인터뷰에서 트뤼도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으며, 소련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했기에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석하고 있다.<sup>33)</sup> 즉 정치적인 목적과 고정관념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어떻게 고급정보를 무시하고 오용할 수 있는지의 경우를 잘 보여준 케이스 중 하나가 KAL기 격추사건인 것이다

일부 서방인사들과 대부분의 소련인들은 계속 KAL기가 첩보행위에 가담했다고 믿어온 경향이 있었다.<sup>34)</sup>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 러시아의 「이즈베스치아」

31) 우스티노프는 이미 이전에 이곳의 레이더 시스템 수리를 독촉했기에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격분을 했다고 한다. 우스티노프의 도브리닌에 대한 브리핑 상황, Dobrynin, Ibid., pp. 537-538. 참고로 도브리닌은 1962년부터 86년까지 무려 24년간 소련의 미국대사로 있었던 냉전의 일차 목격자였다.

32) Hersh, Ibid., pp. 173-174.

33) 트뤼도의 발언과 인터뷰 내용, Hersh, Ibid., pp. 244-245 참조

34)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p. 124-125.; Hersh, "The Target is Destroyed," pp. 132-133.; Dallin, *Black Box*, pp. 57-87.

(Izvestiia)지가 1990년과 92년 사이에 행한 조사에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였으며 패닉상태에 있던 소련공군이 과잉대응을 한 것으로 정리하면서 이 문제는 결정적 반증이 없는 한 잠정적으로 해결된 상태이다.<sup>35)</sup> 전술한 바와 같이 과연 소련공군이 고의적으로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KAL기가 민항기인 것을 알고도 격추시켰느냐가 역시 중요하다. UN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93년 발행한 최종 보고서는 고의적으로 민간항공기를 격추한 것이 아니며 미국정찰기로 오인한 소련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sup>36)</sup>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지도 모르는 의문은 당시 KAL기의 행태였다. “목표물은 파괴됐다”라는 말로 유명한 테이프, 즉 미국정부관계자가 공개한 격추기 조종사와 관제소와의 교신내용은 매우 선택적으로 편집된 것이었다. 그 이후 밝혀진 교신의 전 내용을 살펴보면 소련기는 모든 국제 협약의 내용을 따르고 있었다.<sup>37)</sup> KAL기에 대해 모든 사전 조치를 취하고 순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였고 최후로 경고사격을 했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공해상으로 빠져나가자 소련공군은 그 비행체를 미국의 첩보기로 확신하고 격추명령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KAL기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소련 영공 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모를 확률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은 계속 자신이 정상항로를 밟고있다고 지상관제소에 보고하고 있었으며, 나중에 소련기의 합법적인 경고 시그널에 대해 철저히 무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태 전개였다.<sup>38)</sup> 심지어는 소련기를 따돌리기 위해 곡예비행을 하기

35) Martin, *The Cold War*, p. 275에서 재인용.; Isaacs and Downing, *Cold War*, p. 348.

36) Richard Witkin, “Downing of K.A.L. 007 Laid to Russian Error,” *New York Times*, 1993. June 16 참조

37) KAL007기의 의문의 행동에 대해서는 『CNN 냉전 시리즈』가 특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Isaacs and Downing, *Cold War*, pp. 346-349.

테드 터너와 CNN이 제작하고 제레미 아이작스 경이 총감독을 한 24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Cold War* (『냉전』)는 일단 그 방대함에 놀라게 된다. 최근 공개된 동구권의 자료들을 이용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우드로 윌슨 국제 센터 내의 냉전국제사 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의 연구를 포함한 냉전사의 연구업적들을 총 집대성한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고르바초프, 부시, 키신저, 세바르드나제 등의 중요인사들과 보통사람들을 포함한 총 500여명의 증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8500여 개의 필름을 조사했다. 최종적으로 존 루이스 개디스(미국), 로렌스 프리드먼(영국), 그리고 블라디슬라브 주복 러시아 세 냉전사의 권위자가 총 감수를 맡은 이 필름과 Companion 책은 당분간 냉전사에 대한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www.CNN.com/ColdWar](http://www.CNN.com/ColdWar) 참조

까지 했다는 것은 KAL 기의 첩보행위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이용되기도 했다.<sup>39)</sup>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의문이 될지도 모르지만 『CNN 냉전 시리즈』는 KAL 기 기장이 지름길을 택해 연료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련영공을 날았을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 III.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미·소의 대응

KAL격추 이후 더 심각한 긴장상태에 빠진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련이었다. 여러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련은 미국과 서방이 선제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패닉상태에 빠지게 됐다. 10월 6일 레흐 바웬사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된 것도 의심을 더해주는 사건이었고, 10월 23일 레바논에서의 미군 박사 폭파사건 이후 미군이 경계경보를 발동한 것, 10월 25일 미국 본토에서 그레나다 침공으로 다른 경계경보를 발동한 것 등이 전부 소련을 긴장상태에 빠지게 했다. 특히 그레나다 침공이후 미국과 영국사이에 암호송신이 급증한 것에 대해 소련 첩보당국은 주목을 했는데, 사실상 이 암호문들은 명목상 영국연방에 속한 그레나다에 미국이 침공을 하자 영국여왕과 대처 수상이 격하게 항의하는 암호 전문이었다.<sup>40)</sup>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특히 소련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83년 11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실시됐던 대규모 NATO 군사훈련인 에이블 아처 83(Able Archer 83)이었다. 이 훈련은 나토가 핵전쟁에 대비한 훈련이었는데, 소련은 이것이 소련

38) Ibid., pp. 346-349.

39) 허쉬는 이점에 대해 소련군 신문인 *Red Star* 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Hersh, Ibid., p. 236 참조; 또한 허쉬는 소련기가 모든 적법 절차를 밟았으나 격추된 비행체가 이것을 무시했으며 “만일 비행장으로 이 비행기를 착륙시켰으면,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소련 조종사의 9월 10일 소련방송에서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다 Ibid., pp. 171-172.

이삼성은 주로 피어슨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당시 KAL기가 촘촘한 미국의 전자 레이더 그물망에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날고있을 확률과 KAL기 자신이 잘못된 항로를 가고 있는 것을 모를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련의 대공 신경망을 건드려 그 반응을 살펴보는 미국의 첩보전에 KAL기가 이용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당대, 1995), 63~75 쪽

40) Walker, *The Cold War*, p. 272.

에 대한 핵선제공격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특히 당시 시행되고 있던 RYAN 프로그램은 이러한 나토의 행동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돼 있었기에 소련 첩보당국은 공포상태에 빠지게 됐다.<sup>41)</sup> 고르디에프스키에 따르면 당시 소련 지도부의 패러노이아는 실재했었고, 해외의 베테랑 KGB 요원들은 그 것을 믿지 않았지만 KGB 센터는 각 지부에 미국이 핵 기습공격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긴급훈령을 발동했다.<sup>42)</sup>

이러한 마-소간의 갈등구조는 ‘이룰 수 없는 평화’로서의 냉전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국적 민항기의 실수로 유발된 하나의 사건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점증되어갔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동 서 양측은 상호 체제의 공고화와 합리화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상호 이해 속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고 갈등구조를 심화시킨 것은 전형적으로 ‘이룰 수 없는 평화’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도브리닌은 이미 점증하고 있었던 동 서간의 긴장의 씨앗은 이 사건을 촉매로 짝이 트게됐다고 개탄했다.<sup>43)</sup> 소련은 격추자체를 처음에는 부인하고 나중에는 의례적인 사과도 하지 않음으로서 필요 이상으로 비난을 받았고 레이건 행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성공적인 국제적 반소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벌이고 군비증강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굳히는데 성공했다.<sup>44)</sup> 그러나 미시간 대학의 제레미 수리교수가 최근에 *Journal of Cold War Studies* 에 쓴 논문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1983년은 쿠바사태가 있었던 1962년 다음으로 냉전사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였지만 역설적으로 돈 오버도퍼가 얘기한 “냉전없는 새로운 세계” 로의 “대전환(the turn)”을 이룬 시작을 알린 시기이기도 했다.<sup>45)</sup> 따라서 냉전체제를 해

41) Walker, *Ibid.*, pp. 276-277; Isaacs and Downing, *Cold War*, p. 349.;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p. 138-139.

42) Andrew and Gordievsky, KGB, p. 583, pp. 598-600.; Andrew and Gordievsky, eds., *Instructions from the Centre: Top Secret Files on KGB Foreign Operations, 1975-1985*, Hodder and Stroughton, 1991, pp. 85-88.

43) Dobrynin, *Ibid.*, pp. 536-537.

44)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p. 120-125.; Isaacs and Downing, *Cold War*, pp. 347-348.: 달린도 소련의 태도는 국내적으로는 성공적인 효과를 얻었지만 국제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Dallin, *Black Box*, pp. 91-93.

45) Jeremi Suri, “Explaining the End of the Cold War: A New Historical Consensus?” *Journal*

체시킨 동심원적 중심구조의 1차 동심원으로 1983년의 위기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레이건은 말은 거칠게 했으나 아서 솔레진저 Jr. 처럼 레이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조차 놀랄 정도로 레이건은 행동은 자제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sup>46)</sup> 격한 비난을 하고 난 후 레이건의 9월 5일 공식 TV 연설은 소련의 사과와 희생자 보상 등 예상보다 온건한 내용이었으며, 무기감축노력에 대한 재확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sup>47)</sup> 백악관과 NSC 내에서 마-소외교관계 단절, 소련 영사관 폐쇄 군사행동고려 등의 강경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었지만 레이건행정부는 온건한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48)</sup> 도브리닌에 따르면 안드로포프의 “프라우다 성명” 직후 레이건은 키신저를 백악관으로 초빙해 자문을 구했으며, 키신저도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극도의 절제력을 보이고 연설 시에 반소적인 공격성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sup>49)</sup> 당시 안보담당 보좌관이었던 로버트 맥팔레인은 소련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 위에 언급한 에이블 아처 83훈련에 원래 참여하기로 한 대통령 레이건 부통령 조지 부시, 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거, 그리고 미국 합참 수뇌부의 불참석을 중용했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훈련에의 불참을 결정했다.<sup>50)</sup> 그리고 에이블 아처훈

---

*of Cold War Studies* vol. 4, No. 4 Fall, 2002, pp. 60-92; Don Oberdorfer, *The Turn: From the Cold War to a New Era*, Simon and Schuster, 1991, pp. 34-40.

46) Dallin, *Black Box*, pp. 93-94; Gaddis, *Russia,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p. 320; John Lewis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mplications, Reconsiderations, Provoc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 125-126; Arthur Schlesinger, Jr., *The Cycles of American History*, Houghton Mifflin, 1986, pp. 56-58.

특히 개디스는 이후의 냉전의 전개상황은 이전 닉슨, 포드, 카터의 시기보다 더 데탕트적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레이건이 이후에 보인 유연성은 그의 강경파 지지자들에게조차 놀라움을 안겼다. 예를 들어 Norman Podhoretz, “The Reagan’s Road to Detente,” *Foreign Affairs*, LXIII, 1984, pp. 447-464.

47) 레이건의 83년 9월 5일 TV 연설 *Reagan Public Papers: 1983*, p. 1230.

48) 대표적인 강경론자는 NSC 멤버였던 존 퀴초우스키와 훗날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 유명해지는 올리버 노스였다.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 121.; Hersh, “*The Target Is Destroyed*,” pp. 122-123.

49) 10월 1일 키신저와 도브리닌의 대화 Dobrynin, *In Confidence*, p. 540 참조

50) Martin, *The Cold War*, pp. 276-277; Oberdorfer, *The Turn*, p. 65;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 138.

련이 끝나고 난 후 소련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84년 1월 16일 레이건은 미래의 미 소 관계에 대해 놀랍도록 우호적인 연설을 했고, 스탈츠는 그로미코에게 레이건의 의도는 진지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으며, 안드로포프는 여기에 대해 양측 정상사이에 대화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비밀서한을 보냈다.<sup>51)</sup> 소련 측에서도 이미 83년 9월 8일 그로미코의 연설에서 “현재 세계의 제일 큰 문제는 핵전쟁을 피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었고 비록 초긴장상태에 있었지만 관계개선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다. 83년 11월 5일 불세비키 혁명 기념식에서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던 안드로포프 대신 행한 정치국원 그리고리 로마노프의 연설도 비록 미국의 ‘적대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있지만 “데탕트, 평화공존, 그리고 무기감축의 길”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sup>52)</sup> 안드로포프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이 생긴 가운데 84년 2월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84년 그로미코 외무상의 아들이자 아프리카 연구소 소장이었던 아나톨리 그로미코는 『핵 시대의 신사고』라는 책에서 SS-20미사일의 유럽배치를 포함한 기존 핵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으며,<sup>53)</sup> 같은 해 훗날 고르바초프의 과학담당 보좌관이자 레이카비크 정상회담 멤버가 되는 예브게니 벨리코프와 그의 동료들은 미·소 양측이 500여 개의 이동식 미사일만 보유하는 수준의 핵무기 감축안을 소련 내부적으로 내놓았고 미래의 소련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이 제안을 숙지하게 됐다.<sup>54)</sup> 이어서 84년 6 월에는 소련은 대외적으로 우주에서의 무기를 금지하는 일련의 협상안을 제시했다.<sup>55)</sup>

안드로포프 사망 이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령의 체르네펬코가

51) Cohen, *America in the Age of Soviet Power*, p. 299; Gaddis, *Russia,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p. 327.; Oberdofner, *The Turn*, pp. 15-77.

레이건 이날 연설 전문은 *Reagan Public Papers: 1984*, pp. 40-44 참조

게디스에 의하면 원래 레이건의 대소련 기본 입장은 대결이 아니라 힘을 가진 상태(negotiation from strength)에서의 협상이라는 것이다 그가 소련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 만날 기회도 없이 소련 지도자들이 연달아 사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한다. 사실 레이건의 집권 이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네펬코가 짧은 간격을 두고 사망했다. 레이건은 안정된 체제를 가진 건강한 고르바초프와는 결국 정상회담을 가질 수가 있었다.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pp. 124-126 참조

52) *Pravda*, 1983. Nov. 6;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p. 135-138.

53) A. Gromyko and V. Lomeiko, *Novoe Myshlennie v Yadernii Vek*, 1984.

54) S.F. Cohen and K. vanden Heuvel, eds. *Voices of Glasnost*, W.W. Norton, 1989, pp. 158-160.

55) Gaddis, *Russia,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p. 327.

소련최고지도자가 됐기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감축 논의는 계속 진전되고 있었고 젊고 신사교를 가진 고르바초프가 소련 지도자가 되면서 세계는 새로운 단계의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 84년 9월 그로미코는 미국과의 관계복원을 위한 미국방문을 결행했으며, 레이건의 대선 압승이 결정된 11월에는 마소 양측이 84년 초에 새로운 무기감축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을 선언했고, 12월에는 떠오르는 소련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영국을 방문할 시에 “소련은 핵미사일에 대한 감축문제에 있어서 ‘과감한 해결을 추구할 준비가 돼있다’고 선언한다.<sup>56)</sup> 3개월 후 체르넨코가 사망하면서 늙고 병들고 고리타분한 소련지도부의 시대는 가고 세상은 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sup>57)</sup> 결론적으로 KAL 격추사건은 2차냉전의 절정을 이루었으며 양측의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싹이 트는데 큰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미 한국전쟁을 통해 양 체제가 터득한 ‘위기를 통한 표준의 구성,’ 즉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의 예는 KAL기 격추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긴장상태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다가 급격히 안정상태로 다다르는 일반적인 현상과 더불어 위기상태에서 양측이 그것을 관리하는(manage) 표준을 터득한 미-소가 다시 한번 그러한 패턴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하겠다.

#### IV. KAL기 격추에서 동구권의 서울올림픽 참가로의 변화

앞장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소련체제는 KAL사건을 전후한 시기부터 심각하게 대외적인 정책변화를 탐색했으며, 고르바초프라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과 더불어 단순한 외교정책변화를 넘어선 ‘개혁’을 추구했다. 고르바초프는 이미 집권 이전부터 소련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집권 이후 꾸준히 변화를 추구하다가 1988년 즈음에 소련은 대내외적으로 대규모의 개혁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랐

56) Strobe Talbott, *Deadly Gambits: The Reagan Administration and the Stalemate in Arms Control*, Knopf, 1984, pp. 355-356.;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p. 126.

57) Gaddis, *Ibid.*

다.58) 따라서 1988년 초여름은 고르바초프 개혁의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5월의 모스크바 정상회담, 6월의 공산당 19 차대회에서의 정치적 자유화와 비공산당 승인 조치, 러시아 동방정교회 1000 주년에 즈음한 교회와의 화해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59) 러시아의 대표적 냉전사가인 블라디슬라브 주복의 견해에 따르면 1988년은 소련 내부의 페레스트로이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추구하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한 해라고 평가한다.60)

이러한 소련의 숨겨진 변화와 맞물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개최됐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국가들의 참여는 새로운 시대를 표방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다.61) 캐나다의 IOC위원이었고 서울 올림픽 당시 IOC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리처드 W. 파운드도 서울 올림픽을 IOC의 입장에서 회고한 책에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가 서울올림픽 성공의 밑거름이었음을 인정한다.62) 파운드는 서울 올림픽이 소련입장에서는 거대한 ‘체스판’에서의 줄이었지만 “줄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법이고 체대로만 움직인다면 왕도 잡을 수 있는 것”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쓰며 서울 올림픽의 의미를 나름대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63)

2차 냉전의 도래와 더불어 생겨난 서방측의 80년 모스크바올림픽과 동구 측의 84년 LA 올림픽 보이콧에 비교했을 때 서울올림픽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띄었다고 보겠다. 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시도가 실패하자 북한은 공산권의 보이콧을 주

58) 고르바초프의 외교보좌관이었던 드미트리 푸르만의 증언, Dmitry Furman, “Fenomen Gorbacheva,” *Svobodnaia mysl*, no.11, 1995.

59) Martin, *Ibid.*, p. 302.

60) Vladslav Zubok, “The End of the Cold War in Europe: Lessons for Korea?” in Chung-in Moon, Odd Arne Westad, & Gyoo-hyoung Kahng eds.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pp. 55-56.

61) 전상진 편저, 『세계는 서울로: 나의 서울 올림픽 9년』(범양사 1989), 412~415, 446~455 쪽 이 책은 바덴-바덴에서의 올림픽 유치단원이었고 9년 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으로 일한 전상진이 정리한 올림픽관련 자료집이다.

62)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The Secret Negotiations behind the 1988 Olympic Games in Seoul*, Little, Brown, 1994.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최보은 역, 『Five Rings Over Korea: 88서울 올림픽, 그 성공 비화』(예음, 1995)로 번역됐다.

63) *Ibid.*, pp. 338-342.

파운드는 훗날 역사가들이 서울 올림픽이 이 대회에 불참한 쿠바와 북한의 진보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했다고 쓸 것이라는 과격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Ibid.*, pp. 5-6.

장했지만, 고르바초프는 김일성주석을 모스크바로 불러 소련과 다른 동구권국가들의 서울 올림픽참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CNN 냉전 시리즈』는 이 순간을 북한이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동맹의 성격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은 첫 번째 사건”이었으며 고르바초프가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보인 “조금 더 평화로운 세계(friendlier world)로의 또 다른 싸인”이라고 평가한다.<sup>64)</sup> 당시 소련의 입장이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동구권에게 보이콧을 종용할 입장이 아니었기에 과감히 참석을 결정했고, 중국과 더불어 이 올림픽의 성공을 은근히 지원했고, 이것이 서울 올림픽성공의 필수적 요소였으며, 그 결과 서울 올림픽이 역으로 세계 평화에 부분적으로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겠다.

서울 올림픽 이후 더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탈냉전의 속도는 빨라져갔고, 급기야 88년 12월 고르바초프는 UN 방문 시 공개적으로 냉전의 종식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세계학계는 아직 서울올림픽의 의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언론이 높이 평가하는 만큼은 다루고 있지 않다. 아마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일어나던 탈냉전의 조류가 수많은 초대형 사건의 격변 속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끈 것이 아닌가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 동구권 학자들에게 확정한 바로는 서구진영에서도 가장 조소의 대상이었던 한국이 이룬 정치적 경제적 성장을 보고 느낀 공산권의 충격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었고 이러한 성공은 한국의 동구권수교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동구권해체와 공산주의의 종언에 비록 제한적이거나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65)</sup>

올림픽 직전에 시작된 헝가리와의 수교노력은 올림픽 성공이후 급물살을 타 결국 89년 수교에 이르게 되고, 이어서 유고, 폴란드, 소련, 불가리아가 잇달아 무역 사무소를 서울에 개소하게 됐다.<sup>66)</sup> 특히 소련과의 관계개선은 특기할 만하다. 서울

64) Isaacs and Downing, *Cold War*, p. 370.

65) 여기에 대해서는 이 주제에 대한 국제회의나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한번 종합적인 재평가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의 서울올림픽평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부, *Media Heralds Seoul Olympic: The Games of the 24th Olympiad Seoul 1988,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1989* 참조 특히 소련의 대단히 호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Izvestia* 1988. Sep. 18일자 참조, *Media Heralds Seoul Olympic*, pp. 156-157에서 재인용

한국의 대 공산권관계개선에 대해서는 이윤근·김명수, 「서울 올림픽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vol. no.6 (1990), 191, 200쪽.

올림픽 개최 확정 이후 1982년 10월 소련 문화성의 보보프 국장이 소련정부관료로서 처음 입국하는 등 관계가 진전됐고, 비록 83년 KAL 격추사건으로 관계가 완전 단절되는 위기가 있었지만, 85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대회의 소련참가를 시작으로 양국은 조심스런 접근을 재개했다.<sup>67)</sup> 결국 87년 12월 22일 헝가리와 동독이 서울 올림픽 참가를 발표한 일주일 후 체육성 차관 가브릴린을 단장으로 하는 소련대표단이 극비리에 서울에서 소련의 서울 올림픽 참가에 따른 협정서에 서명했고, 곧이어 88년 1월 1일 그라모프 소련 체육성 장관의 서울 올림픽 참가 공식발표로 이어졌으며, 또 소련이 자랑하는 세계적 프리마돈나 니나 아나니아시빌리를 필두로 하는 볼쇼이 발레단 내한을 비롯한 문화교류와 올림픽을 전후하여 ‘바로 그’ KAL의 소련영공 통과를 허용했다.<sup>68)</sup> 이러한 상황은 소련내의 변화와 맞물려 올림픽 후 90년 6월의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회동, 그리고 90년 9월 30일 양국의 극적인 공식수교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중국도 이러한 소련의 선례를 따라 92년 수교에 이른다. 이러한 소련과 중국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인한 것이며 한국과의 무역증대와 한국의 투자와 경제원조를 염두에 둔 결단이었다.<sup>69)</sup>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올림픽은 탈냉전무드를 가속화시켰으며, 한국과 동구국가들의 수교를 앞당긴 것뿐만 아니라 동구국가들 자체에 충격파를 던졌다. 권위 있는 소비에톨로지스트인 수어런 바이알러와 마이클 만델바움은 러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경멸해왔던 한국이 이룬 경제적 성공은 “특히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고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기술적 도전은 소련 지도부로 하여금 자신의 후진성을 깨닫고 진정한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원동력이었다고 표현한다.<sup>70)</sup> 이미

66) 이재호, 「서울 올림픽 한돌 전방위 외교시대 열다」, 『동아일보』 1989년 9월 8일

67) 이윤근, 김명수, 「서울 올림픽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친 영향」, 196쪽, 이방원 「드디어 열리는 북방의 문: 서울 올림픽 비화 마지막회」 『체육』 vol.254, no.1 (1989), 72~75쪽. 이 비화집은 나중에 묶여져서 『서울 코레아』 (행림출판사, 1989)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간됐다

68) 이방원, 「드디어 열리는 북방의 문」, 75쪽, 박문신,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황하, 2000), 269~271쪽

69) Michael Beschloss and Strobe Talbott, *At the Highest Levels: The Inside Story of the End of the Cold War*, Little Brown, 1993, p. 229.;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 668.

70) 두 저자는 일본을 다른 예로 들고 있다. Seweryn Bialer and Michael Mandelbaum, *Global Rivals: The Forty-year Contest for Supremacy between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Vintage

소련의 언론은 이전부터 한국경제발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있었으며<sup>71)</sup> 이러한 평가를 재확인한 것이 바로 서울 올림픽이었다. 비록 서방이 냉전기간 중 정치, 군사, 첩보적으로 일방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강력한 경제적 베이스구축을 통해 냉전기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때 한국이 올림픽을 통해 보여준 성공사례는 냉전 종식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72)</sup> 이러한 예는 다시 한번 비록 비대칭적이고 부분적이긴 했지만 한국이 냉전이라는 국제체제에 영향을 미친 좋은 예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냉전체제는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하는 동·서 양진영이 핵무기 경쟁을 위시한 일축즉발의 극심한 경쟁·대결구도 하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헤게몬(hegemon)간의 열전으로 발전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붕괴된 체제였다. 이 시대가 재미있는 것은 아룡이 지적한대로 두 가지 일견 모순된 현상이 공존했던 시대라는 점이다. 한편으로 냉전 체제는 사소하건 중대하건 이 시대의 여러 사건들이 일차적으로는 타협과 양보보다는 갈등의 고조를 불러오기 쉬운 근본적으로 “이룰 수 없는 평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시대는 냉전의 극심한 경쟁체제가 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메카니즘이 존재하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의 시기이기도 했다.<sup>73)</sup>

---

Books, 1988, pp. 78-79.

바이알러는 과거 조지 케난이나 엘렌 카레르 당코스의 견해와 흡사하게 냉전구조의 해체가 소련의 내부적 취약성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예측한 바 있다. Seweryn Bialer, *The Soviet Paradox: External Expansion, Internal Decline*, Alfred A. Knopf, 1986 참조

71) 예를 들어 *Komsomolskaia Pravda*, 1988. May 22.

72) Martin, *The Cold War*, p. 347.

73) 이러한 메카니즘의 형성에 핵공포(nuclear fear)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열전으로의 확대는 결국 인류전체의 공멸을 가져오리라는 근원적인 공포심이 결국은 “긴 평화”와 “기적적인 냉전의 평화적 해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핵전쟁의 공포는 냉전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거의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존재했다. 『그날 이후( *The Day After*)와 같은 영화

한국전쟁으로 완전한 형태를 띠게 된 이러한 냉전의 이중적 성격은 본 논문에서 분석한 냉전 4기, 즉 제2냉전과 냉전종식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과민상태에 있던 소련군부의 과잉대응과 KAL007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결합되면서 격발된 KAL007기 격추사건은 이전부터 점증돼 오고 있었던 2차냉전의 긴장상태를 절정으로 치닫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성격을 띄면서 냉전체제의 긴장구조를 강화시켰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동·서양측은 상호 체제의 공고화와 합리화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고 냉전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과정은 전형적으로 ‘이룰 수 없는 평화’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 사건은 긴장상태가 일단 절정에 이른 이후에는 ‘열전으로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이 위기를 관리하려 노력하며 급격한 안정상태로 향하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의 좋은 예를 보여주기도 했다.

더욱이 KAL 기 격추사건은 당시 공산권의 한계상황과 변화라는 세계사적 조류와 맞물리면서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싹이 트게 하는데 역할을 한 사건이기도 했다. KAL 사건을 전후해 생겨난 소련 외교정책변화의 조짐은 냉전체제가 다시 안정되고 나서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 고르바초프의 대내외적인 개혁으로 확대 발전됐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숨겨진 변화와 더불어 가능해진 동구권국가들의 1988년 서울올림픽 참여는 새로운 시대를 표방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고, 서울 올림픽 이후 탈냉전의 속도는 가속화됐으며, 한국과 동구국가들의 수교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의 더 중요한 영향은 이 대회가 상징하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동구국가들에 준 충격파였다. 자본주의 세계의 가장 변방이라 여겨진 한국의 기술적·경제적 성공이라는 도전은 소련을 위시한 동구국가들이 자신의 후진성을 깨닫고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됐고 이것이 냉전종식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냉전이라는 국제체제와 한국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했다.<sup>74)</sup> 비록 냉전체제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

에서 이러한 심리상태는 잘 표현됐었다. 이러한 잠재심리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Spencer Weart, *Nuclear Fear: A History of Imag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참조.

74) 이러한 관계는 물론 한국만의 경우는 아니었다. 여타 다른 국가들이 냉전체제 자체나 hegemon 에

없어도 현재까지의 연구는 너무 이 방면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비록 비대칭적이었지만 거꾸로 한국의 사건이 냉전체제의 전개에 미친 영향이 적지만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냉전 4기의 사건들인 KAL기 격추사건과 서울 올림픽개최는 비록 한국전쟁만큼은 아니지만, 전자가 2차 냉전의 격화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후자가 냉전체제 해체에 미친 간접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이라는 작은 톱니바퀴가 국제적인 냉전체제라는 큰 톱니바퀴를 돌렸던 구성과정으로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무, 『대답 없는 007기』 서울: 한진출판사, 1984.
- 대한민국 외무부, 『소련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 007기 피격사건에 대한 자료집』, 서울, 1984.
- 대한민국 문화공보부, *Media Heralds Seoul Olympic: The Games of the 24th Olympiad Seoul 1988*, Seoul: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1989.
- 박문신,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서울: 황하, 2000.
- 이방원, 『서울 코리아』서울: 행림출판사, 1989.
-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서울: 당대, 1995.
- 전상진 편저, 『세계는 서울로: 나의 서울 올림픽9년』 서울: 범양사, 1989.
- 김명섭, 「냉전연구의 현황과 전망」『국가전략』3 권 2 호, 1997.
- 이방원, 「드디어 열리는 북방의 문: 서울 올림픽 비화 마지막회」『체육』vol.254, no.1, 1989.
- 이윤근·김명수, 「서울 올림픽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친 영향」『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vol. no.6, 1990.

---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Alessandro Brogi, *The Question of Self-Esteem: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Choices in France and Italy, 1944-1958*, Praeger, 2002.; Alessandro Brogi, "Using the Hegemon: Italian-American Relations, 1945-1960," Ohio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2.; Geir Lundestad, *The American "Empire" and Other Studies of US Foreign Polic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Geir Lundestad, *America, Scandinavia, and the Cold War, 1945-1959*,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와 같은 저작들 참조.

- 이재호, 「서울 올림픽 한돌-전방위 외교시대 열다」『동아일보』 1989년 9월 8일
- 하영선·김영호,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한국국제정치학 바로 세우기」『2002년도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외교사분과위원회 기획회의 논문집』, 2002년 12월 12일
- Andrew, Christopher and Oleg Gordievsky, *KGB: The Inside Story*, New York: Harper Collins, 1990.
- Andrew and Gordievsky, eds.. *Instructions from the Centre: Top Secret Files on KGB Foreign Operations*, 1975-1985, London: Hodder and Stroughton, 1991.
- Aron, Raymond, *Les Articles du Figaro*, vol.1: *La Guerre Froide, 1947-1955*, Paris: Ed. de Fallois, 1991.
- Beschloss, Michael and Strobe Talbott, *At the Highest Levels: The Inside Story of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Little Brown, 1993.
- Bialer, Seweryn and Michael Mandelbaum, *Global Rivals: The Forty-year Contest for Supremacy between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New York: Vintage Books, 1988.
- Bialer, *The Soviet Paradox: External Expansion, Internal Decline*, New York: Alfred A. Knopf, 1986.
- Broggi, Alessandro, *The Question of Self-Esteem: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Choices in France and Italy*, 1944-1958, Westport, Conn.: Praeger, 2002.
- Broggi, "Using the Hegemon: Italian-American Relations, 1945-1960," Ohio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2.
- Brun, Michel, *Incident at Sakhalin: The True Mission of KAL Flight 007*, New York: Four Walls Eight Windows: 1996.
- Clubb, Oliver, *KAL Flight 007: The Hidden Story*, New York: Permanent Press, 1985.
- Cohen, S.F. and K. vanden Heuvel, eds. *Voices of Glasnost*, New York: W.W. Norton, 1989.
- Cohen, Warren, *America in the Age of Soviet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Dallin, Alexander, *Black Box: KAL 007 and the Superpow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de Villiers, Gerard, *Le Vol 007 Ne Repond Plus*, Paris: Plon, 1984.
- Dobrynin, Anatoly, *In Confidence: Moscow's Ambassador to America's Six Cold War Presidents (1962-1986)*, New York: Times Books, 1995.
- Gaddis, John Lewis, *Russia,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 Interpretive History*,

- 2nd ed., New York: McGraw Hill, 1990.
-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mplications, Reconsiderations, Provoc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Garthoff, Raymond, *The Great Transi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 Gromyko, A. and V. Lomeiko, *Novoe Myslennie v Yadernii Vek*, Moscow: 1984.
- Halliday, Fred, *The Making of the Second Cold War*, London/New York: Verso, 1989
- Hersh, Seymour M., *"The Target is Destroyed": What Really Happened to Flight 007 and What America Knew About It*, New York: Random, 1986.
- Isaacs, Jeremy and Taylor Downing, *Cold War :An Illustrated History, 1945-1991*, Boston: Little Brown, 1998.
- Johnson, R. W., *Shootdown: Flight 007 and the American Connection*, New York: Viking, 1986.
- Kadell, Franz, *The KAL 007 Massacre*, Alexandria, Va.: Western Goals Foundation, 1985.
- Lundestad, Geir, *The American "Empire" and Other Studies of US Foreign Polic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Lundestad, *America, Scandinavia, and the Cold War, 1945-195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 Nation, R. Craig, *Black Earth, Red Star: A History of Soviet Security Policy, 1917-199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Oberdorfer, Don, *The Turn: From the Cold War to a New Er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1.
- Pearson, David, *KAL007: The Cover-Up*, New York: Summit Books, 1987.
- Pound, Richard W., *Five Rings Over Korea: The Secret Negotiations behind the 1988 Olympic Games in Seoul*, New York: Little, Brown, 1994.
- Schlesinger, Jr., Arthur, *The Cycles of American History*, Boston: Houghton Mifflin, 1986.
- Schlossberg, Bert, *Rescue 007*, Princeton: Xlibris Corporation: 2001.
- St. John, Jeffrey, *Day of the Cobra: The True Story of KAL Flight 007*, Nashville: Thomas Nelson, 1984.

- Smith, Gaddis, *Morality, Reason, and Power : American Diplomacy in the Carter Years*, New York: Hill and Wang, 1986.
- Talbott, Strobe, *Deadly Gambits: The Reagan Administration and the Stalemate in Arms Control*, New York: Knopf, 1984.
- U. S. Government,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Ronald Reagan, 1983*, Washington, 1984.
- U. S. Government,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Ronald Reagan, 1984*, Washington, 1985.
- Walker, Martin, *The Cold War: A History*, New York: Henry Holt, 1993
- Wear, Spencer, *Nuclear Fear: A History of Imag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www.CNN.com/ColdWar
- Andropov, Iuri, "Address," *Pravda*, 1983. Sep. 29.
- Aron, Raymond, "Stupide resignation," *Le Figaro*, 1947. Sep. 21/22.
- Chae-sung Chun, "The Cold War and Its Transition for Koreans: Their Meanings from a Constructive Viewpoint," in Chung-in Moon, Odd Arne Westad, Gyoo-hyoung Kahng eds.,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1.
- Furman, Dmitry, "Fenomen Gorbacheva," *Svobodnaia mysl*, Moscow, no.11, 1995.
- Gaddis, John Lewis, "Containment: It's Past and Future," in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ttkopf eds., *Perspectives in American Foreign Policy: Selected Readings*, New York: St. Martin's, 1982.
- Howard, Michael, "Return to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LIX:America and the World, 1980.
- Komsomolskaia Pravda*, 1988. May .22.
- Kuvaldin, Viktor, "From Cold War to New World" in Gabriel Gorodetsky ed. *Soviet Foreign Policy, 1917-1991: A Retrospective*, London: Frank Cass, 1994.
- Podhoretz, Norman, "The Reagan's Road to Detente," *Foreign Affairs*, LXIII, 1984.
- Romanov, Grigorii, 「83년 11월 5일 혁명기념식 연설」, *Pravda*, 1983. Nov. 6.
- Suri, Jeremi, "Explaining the End of the Cold War: A New Historical Consensus?"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4, No. 4, Fall 2002.
- Witkin, Richard, "Downing of K.A.L. 007 Laid to Russian Error," *New York Times*, 1993. June 16.

Zubok, Vladslav, "The End of the Cold War in Europe: Lessons for Korea?" in Chung-in Moon, Odd Arne Westad, & Gyoo-hyoung Kahng eds.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1.

● 투고일 : 2003. 4. 10

● 심사완료일 : 2003. 6. 2

● 주제어(Key words): 냉전(the Cold War), 제2 냉전(the Second Cold War), 냉전종식(the end of the Cold War), 칼기 격추 사건(the KAL incident), 서울 올림픽(the Seoul Olympics)